



황 호 준

- 서울 경문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금속시스템공학과 졸업
- 삼성전자 DS부문 S.LSI사업부 근무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I. 들어가며

가까운 친구로부터 고시계에 합격 수기를 올려볼 것을 제안 받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였고 약 5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였으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진로를 바꾸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법학에 대해 전혀 공부한 적이 없어 선행학습을 하였거나 법학을 전공하였던 동기들보다 한참 헤매기도 하였고 원체 우둔한 머리로 공부를 하려다보니 자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을 미리 고백하면서 본격적으로 합격수기를 적어보겠습니다.

II. 간략하게 3년간의 수험생활 둘러보기

1. 입학 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법에 대하여 공부한 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대해

서도 아는 것이 전무하였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가 불러일으키는 막연한 두려움에 입학 전에 민법강의라도 들어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3월 15일자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상황에 강의를 들을 시간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 3년간의 정규학기

2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 매 학기 변호사 시험 과목을 수강 가능한 최대학점으로 짹짹 채워서 들었습니다. 이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들을 수업을 미리 정하여 놓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과 단기적·구체적 목표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전자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성적이 부담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개별과목의 성적에 집착할수록 조바심이 점점 커져 장기적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따라 달리 나오는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개인정비시간

법학전문대학원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큼 체감하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가급적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결심하고 두 차례 대회를 나갔고, 세 곳에 실습을 나갔으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쉬움 없는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배분한 만큼 공부할 때에는 집중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끔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과감하게 쉬기도 하였습니다.

Ⅲ. 특별할 건 없었던 변호사시험 준비

1. 교재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초기에 가장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바로 교재 선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제풀이 교재가 아닌 바에야 같은 내용을 다른 편집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사소한 차이가 교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하므로 한 달 가량 시간을 두고 고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친해진 동기들이 먼저 구입한 교재들을 참고하여 제가 3년 동안 불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제 성향에 맞추어 강사님들이 쓰신 교재를 교과서로, 교수님들께서 집필하신 교재를 참고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교재들을 각 과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존칭을 생략합니다)

과목	강사저	교수저
민법	(박승수) 민법정리	(김준호) 민법강의
민소법	(박승수) 민사소송법정리	-
상법	-	(장덕조) 상법강의

형법	(신호진) 형법요론	(이재상) 형법총론/각론
형소법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이재상) 형사소송법
헌법	(김유향)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
행정법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정하중) 행정법개론

또한 3학년이 되면서 핸드북도 별도로 구입하여 보았는데, 핸드북으로 아래의 교재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과목	핸드북 교재
민법	(운동환) 민법 주제별 논리구조 및 필수 암기개념
민소법	(이창한) 진도별 민소법 기출문제
상법	(장원석) 작은 상법의 정초
형법	(이인규) 형법 논점 Capsule
형소법	(이재철)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헌법	(김유향) 헌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정선균) 행정법 핸드북

마지막으로 9월에 공부하였던 최신판례는 아래의 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과목	최신판례 교재
민사법	(김남훈)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형사법	(신호진) 형법/형소법 3년간 판례정리
헌법	(신동주)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행정법	(정선균)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사실 앞서 기술한 교재 외에도 시중에 출판된 상당히 많은 교재를 골고루 구입하여서 보았는데, 이는 선택한 교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과잉·충동구매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모르는 내용을 찾아볼 때에는 이미 익숙해진 위 교재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2. 사례형 시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직후에는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스터디를 구성하여 주로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따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따라쓰기는 문제 유형에 따른 사례형 답안 작성방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일례로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만 따라 썼을 뿐임에도 차후에 민사법 또는 민사법 외의 과목의 사례형 문제를 풀 때에 답안의 구조를 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작정 사례 답안 따라쓰기는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던 관계로 어느 정도 법리가 익숙해진 후에는 쟁점 별 논리구조를 확실히 정리하여 기계적

으로 목차를 세우고, 해당 목차의 내용은 암기하고 있는 법리를 떠올려보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3. 기록형 시험

2학년 여름방학에 3학년 선배들의 6월 모의고사를 신청하여 처음 기록형 시험을 접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형사소송실무(a.k.a 형재실) 수업과 민사소송실무(a.k.a 민재실) 수업을 들으며 민사법 및 형사법의 기록형 시험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으나 공법 기록형 시험에 대한 준비는 스스로 느끼기에도 대단히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헌법은 개별 헌법소송의 각 요건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답안에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히 포섭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행정법은 행정쟁송의 각 요건들을 정확히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4. 선택형 시험

많은 동기들이 UNION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세트로 구입하고 3학년 1학기부터 풀기 시작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7번의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만 숙지하여도 합격에 지장은 없다는 판단하여 3학년 여름방학부터 변호사 시험 선택형 기출문제만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민사법 2회분, 형사법 2회분, 공법 2회분을 풀고자 하였는데, 초반에는 틀린 문제건 맞춘 문제건 모두 풀이를 공부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였고, 두 번 정도 변호사 시험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 이후에는 정선지

문집으로 넘어와 정지문을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5.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

선택과목으로 노동법을 정하여 공부하였고, 2학년 기간 동안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들었으며, 3학년 2학기에 노동법 연습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노동법을 공부하는데 하루 한 시간 정도를 투자하고자 계획하였는데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꽤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과락에 대한 위협부담이 존재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높은 점수를 받아 다른 부분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IV. 변호사시험에 관한 조언

변호사시험은 고득점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생각보다 모자란 부분을 평균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수에서 크게 점수를 벌리더라도 표준점수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통백인 답안지를 내는 것에 비해 개략적으로 아는 내용이라도 기재한 답안을 제출할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조금 더 일찍 가졌더라면 좋았겠지만 저는 3학년 6월에 치른 모의고사 강평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변호사시험까지 남은 6개월 동안 꾸준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고, 실제 이와 같은 공부방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점수로 치환되는 응시자들의 성적분포를 보면 결국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합격선 근처에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결국 변호사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관리와 멘탈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대단한 악필이었던 관계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시험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답안 작성을 마치고 다시 처음부터 답안지를 보며 반드시 기재해야 할 문장이나 키워드가 제대로 눈에 띄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라도 정자로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형을 제외한 유형의 시험들의 경우 원점수가 표준점수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실제 점수차이의 폭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특정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할 때에도 최대한 다음 순서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선택형 한두 문제의 점수차이로 당락이 나뉘는 것을 보고난 후에 시간관리와 멘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한층 강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시험을 보시는 분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노력해 온 스스로를 믿고 차분히 시험에 임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V. 기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법학전문대학원도 사람 사는 공간이라 그 안에서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좋은 추억을 쌓기도 때로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겪는 불쾌한 경험 외에도 학업 스트레스, 준비과정에서 겪는 개인적 어려움 등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연인이나 부부에게 쉽사리 털어놓기도 어렵고 애써 털어놓아도 이해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충들을 덜어주는 사람들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 선후배들 그리고 동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험난한 여정과도 같은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동료들과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작스레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진학 의사를 밝혔을 때 흔쾌히 동의해준 아내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생한 딸아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족한 합격수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 고시계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